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 '도시바람길숲' 조성 속도 낸다

연말까지 설계용역 마무리...3년간 200억원 투입 추진 울 1차 9곳 도시숲...미세먼지 차단숲 최우수기관 선정

광양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연말까지 완성한다. 지난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산림청 주관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광양시는 '녹색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펼친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착수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설계용역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는 용역비 10억원, 공사비 19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이 들어간다. 설계 용역에서는 열 환경과 바람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상지(안)를 선정했다. 산림청·도시숲 전문가, 시민 의견을 들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에서는 90억원을 들여 9곳에서 추진된다. 광양읍 미술관 주변, 중마동 마동근린공원·논소공원·와우그린공원 등 5곳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

쳐 나머지 4곳(사업비 30억원)에 대한 공사 발주를 이달까지 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내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광양읍 인덕로·매천로, 중마동 향만대로·중마중앙로 등의 연결숲을 조성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광양시의 성과는 산림청과 전남도로부터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만든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산림청 주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중마지구 차단숲이 전남도 '차단숲 분야' 우수기관에 뽑혔다. 광양시는 올해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70억원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 3곳(7ha)을 조성하거나 완료한 상태다. 광양읍 울촌산단 1ha, 광영·의암지구 3ha, 중마지구 3ha 등이 있다. 중마지구에서는 산책로 주변에 메타세쿼이아숲



광양시가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도심 곳곳에서 조성하며 '녹색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양 인덕천 인근에 조성된 꽃길. <광양시 제공>

길을 만드는 사업을 지난 6월 마무리했다.

광영·의암지구와 울촌산단 공사는 이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영·의암지구 기후대응 도시숲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산책로 일부 구간을 맨발로 걷기 좋게 조성했다. 소나무 등 상록수와 다채로운 단풍을 느낄 수

있는 메타세쿼이아, 복자나무 등 큰 나무와 관목류를 조화롭게 심었다. 내년에는 광양읍 울촌산단과 익산·초남공단 해안도로 주변 4ha에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읍 울촌산단은 올해 사업과 연계해 공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익산·초남공단 해안도로 생육 기반을 개선해 생활권으로 오염원이 퍼지지 않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자투리 공간과 유휴지를 활용해 녹색 공간을 넓히고 있다. 내년에는 인덕천 녹지 미조성 구간에 4억원을 들여 생활환경숲을 조성한다. 광양의 벚꽃 명소인 동천과 연계해서는 1억원을 투입해 소풍물 앞에 녹색쌈지숲을 만든다. 광양중동중학교 자투리 공간에는 1억원을 들여 학교숲을 꾸민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세계적인 절경·향만의 산업도시에서 수소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 도시숲을 지속해서 확대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녹색도시 광양 실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중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네덜란드·벨기에와 손잡고 치유농업 육성

상호협력·발전 위한 업무협약 프로그램 개발·교류방문 추진

치유농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건 구례군이 선진지인 네덜란드·벨기에와 손잡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구례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네덜란드 치유농업협회·벨기에 녹색치유지원센터와 구례군 치유농업 상호협력·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구례군은 치유농업 선진지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관련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사항은 ▲치유농업 상호 공동발전 정보교류 ▲치유프로그램 개발 협조 ▲교류방문 추진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네덜란드 치유농업협회는 네덜란드 각 지역의 치유농장을 대표하는 주정부 치유농장 지역협회이다. 이 기관은 치유농장의 품질인증과 관리를 전담하고, '치유농업 케어팜'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 녹색치유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주정부 기관이다. 치유농업 연구, 치유농장 관리, 컨설팅,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구례군(군수 김순호·가운데)과 네덜란드 치유농업협회, 벨기에 녹색치유지원센터 관계자가 16일 구례군청에서 '치유농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네덜란드 치유농업협회와 벨기에 녹색치유지원센터 측은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치유자원

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인 치유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의 치유농업 산업은 탄소중립 휴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정정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인 치유농업의 생태계로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울촌산단 장도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개장

여수 울촌산단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울촌 1산단 장도공원 내 2만1218㎡ 부지에 2개 코스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촌장도 파크골프장'은 사무실과 창고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일반인은 2000원, 국가유공자 50% 할인, 경로 우대자 면제, 관외 거주자는 5000원 등이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현장 접수를 해 골프장을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약 6억원을 들여 울촌장도공원 파크골프장을



여수시(시장 정기명·앞줄 여섯 번째)가 최근 울촌 1산단 장도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여수시 제공>

조성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뒤 잔디 생육기간을 거쳐 이달 13일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전남도·여수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원들의 숙원이었던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게 됐다"며 "파크골프는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까지 함께 즐기기에 좋은 운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탄소배출 저감 식량작물 재배 시범사업

80여명 참가 식량작물 평가회

보성군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식량작물 재배에 힘쓰기로 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식량작물 시범사업에는 21곳이 참여해 240ha 규모 농사를 지었다. 보성군은 사업비 7억1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신기술 보급과 노동력 절감 재배 등을 진행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핵심 사업으로는 '벼 육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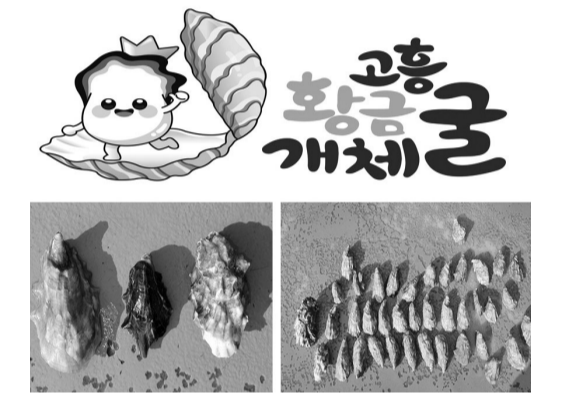
상자 자동 이송 단지 조성'과 '저탄소 벼 논불관리 기술 보급' 등이 있다. 이들 재배기술은 노동력 투입량을 줄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은 최근 농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 참석자들은 자신이 수행한 사업과 이번 평가회 대상 포장의 재배 과정과 생육 상황을 자세히 비교·관찰했다. 참석자들끼리 잘된 점과 개선

할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후 전남도농업기술원 시험 포장으로 이동해 분질미(가루쌀), 강대찬 등 품종 재배 현황을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관련 연구자로부터 재배 방법, 품종 특성 등의 재배 기술을 안내받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성군 벼 작황은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기상악화로 분얼(分蘗)·등숙(登熟)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들의 가뭄 극복 의지와 보성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라며 "이번 종합평가회에서 나온 우수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날개로 키워낸 '고흥황금개체굴' 상표 출원

일반굴 10배 비싼 고소득 품종

고흥군이 굴을 하나씩 날개로 키워내는 개체굴인 '고흥황금개체굴' 상표를 출원했다. <사진> 고흥군은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황금개체굴' 상표 출원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발한 '고흥황금개체굴' 상표 브랜드는 통통한 우웃빛의 고흥 굴을 표현했다. 고흥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강함과 생동감 있는 고흥황금굴만의 모양과 색깔을 상징한다. 고흥 굴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 제 22호로 등록됐다.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호응이 높다. 이번 상표 출원으로 고흥 굴 상품의 가치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했다. 고흥산 황금개체굴은 양식에 성공한 뒤 14억 인구가 중국을 겨냥해 수출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다. 고흥군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3배체 개체굴 우량 품종을 어업인에게 나눠주고 있다. 3배체 개체굴은 4배체 수컷과 2배체 암컷의 생식을 통해 염색체 3쌍을 가지고 태어난 굴이다. 3배체 굴은 모두 불임인데 반식에 들어갈 영양분을



성장에 쓰기 때문에 일반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도 좋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굴에 비해서는 가격이 10배가량 비싼 고소득 품종이다.

고흥군은 3배체 개체굴 생산이 고흥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고, 어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품질 황금개체굴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굴 양식 어업인에게 친환경 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사업 등 약 17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흥 굴을 널리 알리고, 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백세미 나눠주며 우리 쌀 먹기 홍보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의 날'(10월14일)을 맞아 최근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어린이 200명과 우리 쌀 먹기 홍보를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곡성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찾아 '우리 쌀을 먹어요'라는 주제의 활동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쌀 섭취의 필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들에게 성장기 잘못된

식습관과 아침 결식의 문제점을 알렸다. 또 올바른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곡성지역 대표 쌀인 '백세미'를 나눠줬다. 전은례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은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 쌀을 사랑하고 자주 먹을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곡성 특산물인 백세미 소비도 늘릴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순천시 20~21일 역전시장서 '싱싱포차' 행사

순천시가 가을 제철 수산물 맛볼 수 있는 '2023 싱싱포차 : 가을의 맛' 행사를 오는 20~21일 연다. 이번 행사는 전남 동부권 최대 수산물 집결지인 역전시장 수산물아케이드(풍덕주력길 31 일원)에서 열린다. '싱싱포차' 행사는 순천시와 순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행사를 마련했다.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지역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앞서 이달 13~14일 열린 뒤 20~21일 다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가을 제철 수산물을 바로 사서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다. 역전시장 상인회와 인근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주민·상인 주도 상설 축제를



지난해 7월 역전시장에서 열린 '싱싱포차'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열 계획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안전과 위생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방비로 마음 놓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속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